

# 목어

## 사랑의 매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 가운데 사랑의 매를 인정한 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처벌을 받은 한 학생의 고발로 이루어진 이 사건은 그 다름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법률적인 판단을 받은 것이라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선생님, 미국의 법원이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로 선생님의 꾸중을 피해가려는 이웃나라 장면을 처음 접했을 때 당혹스러웠다. 나아가서 부모님들의 꾸중까지 사법적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당혹스러웠다. 얼마 전의 외신에 전해주는 부모고발 권고를 보면 더욱 당혹스러웠다. 내용인즉 불관사의 외신인데, 자식을 낳고 책임있게 기르지 못하거나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부모를 고발하려는 것이다. 아직까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부모와 자녀, 교사와 제자 관계가 사법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일이 별로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10여년 전 영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한 학생이 선생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숙제를 해오지 않은 잘못으로 체적으로 손바닥을 맞았다. 그 사건은 곧바로 고발되었고, 영국의 법원은 신중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

결론은 이렇다. "체벌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반드시 교육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밝힌 법원은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체벌은 정당하지만 처벌의 방법이 비교육적이란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 교사가 체벌에 사용한 체적이 성도착자가 사용하는 체적이었던 것이다. 체적 그 자체도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판결이다. 체벌도 정당하다는 논리만을 앞세워 처벌을 남용해서도 안될 일이다. 체벌이 합당해야 하고 당사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처벌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교육적인 기준에 반드시 근거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의 깊은 내면적인 성숙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모든 것을 교육적인가 비교육적인가를 먼저 검토한다면 체벌 그 자체를 경직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근후(이화대 교수·본지는설위원)

# “다시 오셔서 등불이 되어주소서”

## 삼광당 비룡스님 원로회의의葬

오대산의 송죽(松竹)이 적멸의 국토로 환지본처(還地本處)하다. 삼광당(三光堂) 비룡(飛龍) 대종사 원로회의의장인 1일 월정사에서 봉행했다.

1일 오전 조계종 원로회의의 의장 탄성, 원로의원 종산·지중·정하스님, 총무부장 원택, 중앙종회 부의장 명진, 합중현 한나라당 의원, 김종락 월정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영결식은 명종(종두 5타), 삼귀의, 영결법요(칭찬 및 덕경), 행장소개, 추모입장(육성녹음), 영결사(원로회의 의장), 법어(종정스님), 조사 및 조가, 헌화·분향, 인사말씀(문도대표), 사후서원, 발인 등으로 진행됐다.

탄성 원로회의의 의장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 몸이 출세하신 것도 중생을 위함이요 입적에 드는 것도 중생들에게 무상설법(無常設法)을 하고, 생사 일대사의 대각(大覺)의 길을 인도 함이로다.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종단 발전에 등불이 되어 주소서”라고 기원했다.

이어 해암 종정스님(탄성스님 대독)은 법어를 통해 “생과 멸이 본래 없으니 가고 올 또한 어디 있으리, 목마는 하늘을 날고 진흙소(泥牛)는 바다를 건너도다”고 설했다.

특히 고령으로 영결식장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전 조계종 종정 서암스님

이 보내 온 애도사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적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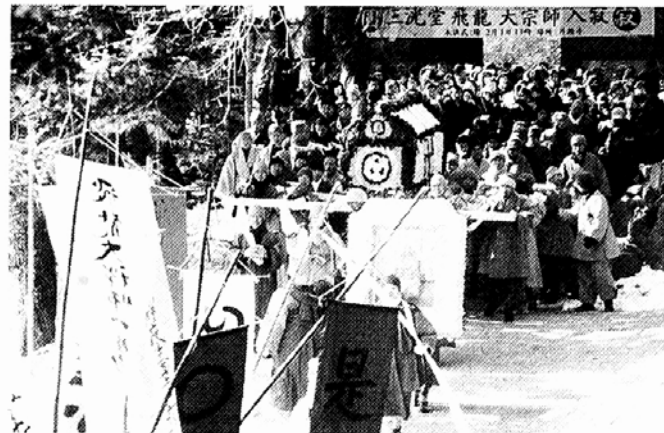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반하던 날까지도 금욕을 정제하고 꼬박 밤을 세워가며 불보살님께 기도드리시던 비룡 스님, 비룡스님의 그 대원력을 또 누가 이어갈까, 가슴 답답하며 할 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스님의 법구는 이날 오후 2시 월정사 일주문 근처에 마련된 다비장에서 불꽃과 함께 4대로 돌아갔다.

### 행장

1901년 개성에서 출생한 스님은 1927년 3월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강원도 인제에서 한암스님의 법계를 우연히 듣고 느낀 바 있어 서산왕래를 통해 사제지간의 연을 쌓은 후 한암스님이 일러 준 ‘무(無)자 화두’로부터 수행을 시작했다.

처음 월정사에서 부목생활, 공양주 등 허드렛일을 하면서 하심(下心)공부를 해 나간 스님은 탄허스님으로부터 “무릇 모든 사물은 무상한 것이다. 만약 모든 사물이 진실이 아님을 본다면 여래를 보리라(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即見如來)”는 공경경 4구제(四句偈)를 듣고 출가를 발심, 온갖 상(相)을 깨치고 본성을 보리라 결심했다.



오대산 관세음보살의 화신(化身)인 송죽(松竹)같은 청빈한 삶을 살다 간 비룡스님이 문도들의 배움을 받으며 ‘원지본처’ 하고 있다.

스님은 “공부하는 것을 일념으로 생각하되 계(戒)를 지켜야 한다. 공부하지 않으면 쌀 한톨이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굶는 쇠물을 마실지언정 시주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한암스님의 가르침을 늘 강조했다.

한평생 생식(生食)을 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다. 솔잎을 갈아서 먹는 생식은 몸과 마음을 아주 가볍게 해 음심(陰心)이나 탐욕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좋은 점이 있다는 것.

1950년 6.25동란 때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에서 정진수행중이었는데,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다.

수행중에 강도가 들어와 쌀가마를 탈취해 갈 때 “이 사람이, 반찬값도 가지고 가가지”하고 쌀지에서 돈을 꺼내준 일로, 자비심 많고 착심(善心)이 없는 도인으로 세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1947년 해인사 안거이래 40안거를 성만하면서 몸이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온 스님은 “수년안에 통일될 것이니, 남한에서는 식량을 많이 준비해 두라”고 말했다.

비룡 스님은 열반하는 시기를 미리 알고, 입적할 때 호주머니에 열반송과 함께 다음과 같은 유언을 유필로 남겼

### 비룡스님 열반송

來與白雲來  
去隨明月去  
去來一主人  
畢竟人道生

한 구름이 오듯 더불어 와서 밝은 달이 가듯 따라서 가네 한 주인이 가고 몸이 필경 도인의 삶이라

다. “사바세계 화락고해(火宅荳蔻)로다. 중생들이 꿈만 꾸지 말라. 반성하여 꿈을 깨고 공부하여 고통없는 해탈, 수심수행(修心修行)하면 일체유심조이고 마음에 때와 티끌과 먼지를 제거하면 마음이 밝아 질 수 있다. 심성이 밝으면 고통이 없고 마음이 안정되고, 꿈이 없으면 ‘각(覺)’ 이리라.”

### 수행이력

- 1901년 4월 8일 개성 생
  - 1927년 3월 월정사에서 한암스님을 은사로 출가, 8월 사미계 수지
  - 1940년 금강산 마하연 주지
  - 1947년 4월 해인사에서 상월 대를 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947년 해인사 안거이래 40 하안거 성만
  - 1958년 한라산 천왕사 창건
  - 1986년 조계종 원로회의의 의원
  - 1987년 천왕사 조실
  - 1992년 오대산 월정사 조실
  - 2000년 1월 28일 오대산 방산굴에서 입적
- 평향=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선종어록 언어학적 탐구 활발

## 중국의 선어록 연구

###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 이근후(이화대 교수·본지는설위원)

현대의 중국학계에서 선어록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역사학자나 철학자나 아닌 중문학자들이 많다. 아마 중국 내에서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당·송시대에 편찬된 선어록의 언어 구조나 문법을 연구하여 당시의 언어와 현대언어의 차이를 밝히고, 또한 의미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작업의 결과물은 특히 당·송시대에 편찬된 선종어록이 당·송시대의 구어체로 쓰여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구어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의 보고가 아닐 수 없다.

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선종어록은 다음과 같다. 우선 6조 혜능(638-

713)스님이 편찬한 <육조단경>이 있다. 혜능스님은 당나라 초기의 사람이지만 <육조단경>은 그의 입적 이후 초기에 편찬된 법해본(法海本), 당나라 말기 혹은 송나라 초기의 승려인 혜훈(慧薰)이 개편한 판본, 송대의 승려 계승(契崇)이 개편한 판본, 원대의 승려 종보(宗寶)가 개편한 판본 등이 있다. 둘째는 혜능의 제자인 <하택신회어록>이 있다. 당나라 시대의 구어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셋째는 <조당집>이다. 이 책 속에는 고대의 일곱 부처님과 선종의 33사 이외에 선사 206명의 전기와 실려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당나라 말기 스님들이란 점에서 당나라 말기와 오대의 언어를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다. 특히 중국에서 없어진 것이 1920년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비로소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책이다. 넷째는 <경덕전등록>

이다. 송나라 초기 승려인 도원(道源)이 1004-1007년 사이에 편찬한 어록집이다. <조당집>에 나오는 ‘作摩(어떠한)’, ‘作摩生(어떻게 할 것인가)’, ‘什摩(무엇)’, ‘甚摩(어떤, 무엇)’ 등의 말과 구문 끝에 나오는 어 어기조사 摩를 모두 摩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송대의 언어상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다섯째는 <오동회원>이다. 남송말기인 1241-1252년 사이에 선승인 보제(普濟)에 의해 편찬되었다. 이 책은 남송에서 편찬된 관계로 남송의 언어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여섯째는 <경덕전등록>과 <오동회원>이다. 남송 소흥 원년에 북주의 고산사에서 책장주(積藏主)라는 사람이 편찬한 것으로 전해온다. 이 책은 <경덕전등록>과 <오동회원>. (주자어류)의 사이에 편찬된 어록이며, 그 사이의 언어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치차석

불교학 박사

그동안 중국의 국문학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선종어록의 언어구조를 해부하기에 노력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경제 개방 이후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선종어록에 대한 언어학적 탐색에 대해 이제까지의 성과와 학자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당집>에 대한 언어학적 탐구를 하는 학자는 조광순(<조당집>의 底(地), 却(了), 著, <중국어론> 1986), 조소운(<조당집> 被字句연구, <중국어문> 1993) 이외에 장수우, 이승홍, 이시명 등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동회원>을 연구한 사람으로는 원빈, 동지서, 은문청, 황령경 등의 학자들이 있으며, <경덕전등록>에 대해서는 조생리, 여숙상 등이 있다. 이외에 불경을 언어학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기와 양효홍 등이 있는데 양효홍은 ‘선종전적종’의 용법을 비롯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불리한 단점으로는 1995년에 발간된 우곡의 <선종어론과 문헌>(강서출판사), 1998년 무한대학출판부에서 간행한 <고존승어요> 대조사연구)란 책이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선종어록에 대한 연구 방법과 목적은 전문불교학자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 결과는 선종어록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의 본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작업이다.

이제까지 한국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종어록을 번역했다. 그러나 선종어록의 문법이나 언어구조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번역한 것은 아니다. 간혹 불교학 연구지에서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은 본적은 있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번역상의 오류를 피하고 원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나 선종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의 양성이 시급하다. 우선은 종립 등국대학교 불문학부에 불교한문학 내지 선종어록을 언어학적 차원에서 전공한 학자들을 채용하여 후학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0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 釋氏香方 五分清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혜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 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피로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복돋워 준다.
10. 분위기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등자는 오분향을 찾았으나 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분 마음이 기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삼보의 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니 향을 얻어 삼박 오분향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 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清**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을 불 향)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장직, 영안식)

**生氣香**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에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료: 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음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공급처: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 내 해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02)3446-8148, (02)3446-5889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전화주문도 가능함 ※